



“테러범 꼼짝마” 13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열린 호남권 육·공·해 대테러부대 합동 교류훈련에서 대원들이 건물을 점거한 테러범 진압과 인질 구출을 위해 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광주경찰특공대와 육군 제31사단, 해군 제3함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특수임무대 40여명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입상자 오락가락... 과학이 뒤죽박죽

광주시교육청 ‘중·고생 과학경시대회’가 기가막혀

■광주시교육청 과학경시대회 사태 전말

중 238·고191명 학교 대표로 참가	입상자 발표 해당 학교 통보	일부 수험생·학부모 “납득 못해” 항의	성적처리과정 재점검 107명 접수누락 발견	32명 취소, 22명 등위 변경, 33명 새로 수상	입상취소 32명에 5000원권 상품권
--------------------------	--------------------	--------------------------	----------------------------	---------------------------------	-------------------------

광주시교육청이 가장 과학적이고 치밀해야 할 과학경시대회에서 성적 처리를 잘못해 수 십 명의 입상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1월 초등학교 임용시험 관리 부실로 시험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치른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시험관리에 구멍이 뚫려 교육행정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일 광주 화정중학교에서 ‘제25회 중·고등학생 과학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중학생 238명, 고등학생 191명 등 총 429명이 학교 대표로 참가했다.

교육청 주최 과학경시대회는 고등학생의 경우 서울대 등 주요대학 수시 모집에서 사실상 결정적 영향

초등교원 시험이어 5개월 만에 시험관리 ‘구멍’
대입 수시모집에 결정적 영향... 학부모들 ‘멘붕’

을 미치는 중요 시험이다. 중학생들도 미래 과학도의 꿈을 키우는 등용문이 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일 경시대회 입상자(급·은·동)를 발표,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하지만 중학생부 성적 통보를 받은 학교와 수험생·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에 항의했고, 시교육청은 부랴부랴 성적 처리 과정을 점검한 결과 수험생 107명의 일부 점수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바로잡자 입상 결과가 요동쳤다. 이미 수상 발표된 32명이 들

어 취소됐고, 22명은 등위가 변경됐다. 새로 상을 받는 학생은 33명이다.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2만~5만원의 상품권을 준다.

이와함께 수상자 재발표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입상이 취소된 32명에게 5000원권 상품권을 보내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입상이 취소된 한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 입상 소식에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취소 연락을 받아 황당했다”면서 “더 화가 나는 것은 달래기용 상품권을 보낸 것으로 교육청

의 도덕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도 “교육행정에서 가장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야 하는 것이 시험·성적 관리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교육행정이 불신을 받게 된다”면서 “올해 초 임용고사 관리 부실로 곤욕을 치르고 5개월만에 또 다시 시험관리 부실사태가 벌어져 광주교육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점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입상자가 뒤바뀌는 등 혼란을 끼쳤다”며 “입상이 취소된 학생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사과 편지와 함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니원침 (8838) 김중두



종친회 자금 횡령 혐의 조흥규 전 의원에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이준희 판사는 종친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흥규(70)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07~2011년 육전조씨대종회 회장을 지낸 조 전 의원은 2008년 1월 사무국장 조모(67)씨에게 “1억원을 사용한 후 1억5000만원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소음피해-성당앞 음주단속 비뚤다”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들이 내는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단속 장소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고심중.

○1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천주교 산수동성당 인근에서 이뤄진 음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담배꽂초, 쓰레기 등으로 피해가 적지 않다는 성당 측의 민원이 접수.

○경찰은 성당 입구가 교차로 길목에 위치, 단속을 피하려는 양측 음주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구간이지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장소 변경 방안을 검토중.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환경부, 여수 흑비 원인조사 나서

여수 읍촌면에 내린 검은 비(광주일보 6월 13일자 6면)와 관련, 환경부, 전남도와 여수시 등이 본격적인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13일 여수시 읍촌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영산강환경청, 여수·순천·광양시 등 6개 관공서 관계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검은비 강우와 상관관계 가능성이 높은 읍촌 제1산단내 찾가루 분진 배출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를 비롯, 지속적으로 검은비 강우 사례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감안, 이 부분도 조사할 등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기대를 급파, 낙하분진을 채취한 뒤 정밀 분석에 들어갔고 농작물 영향여부에 대해서는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아울러 여수시에 분진 낙하 발생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식용 자체 등을 요청했다. 전남경철청 동부과학사팀도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국가수에 성분분석 의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와 함께 검은비가 내리던 무렵 인근 읍촌 산단내 폐기물 처리장에서 2차례 폭발이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된 점에 주목, 연관성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원인 및 피해정밀조사, 토양·농작물·식수에 대한 오염 조사, 주민건강 역학조사 등을 요구했다./여수=김창희기자 chkim@

“어젯밤 마신 술이 덜 깨서...”

새벽길 신창동 산월IC 인근 교통사고... 버스 탄 33명 중경상

13일 새벽 6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산월IC 인근 교차로에서 번호(60)씨가 몰던 45인승 관광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오른쪽에서 오던 승모(35)씨의 테라칸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버스는 이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김모(32)씨의 1t 트럭, 김모(여·50)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테라칸 운전자 송씨가 옆구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고 버스에 타고 있던 60~70대 할머니 30명과 김씨 등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버스는 양파 수확 작업을 위해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서 할머니 40여명을 태우고 전북 고창으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이날 운전

면허 정지 수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7%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변씨는 “전날 저녁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호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안도현 시인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인 안도현(52) 우석대 교수 겸 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교수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선거법 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터넷 캠페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판지일보 총수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윤창중 성추행’ 국내서도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여성단체 관계자 등 1000명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당장 검찰이 직접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기초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인데 두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다 미국 현지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단 미국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 시공 전 / 단열베이스가설시공

2 단열베이스가설 / 트라이슈머시공

3 트라이슈머 탈포팅 시공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냉기차단

겨울철 실내온도 3~5℃

난방비 15~20%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 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만 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